서울 천호동「두리식품」

박태섭씨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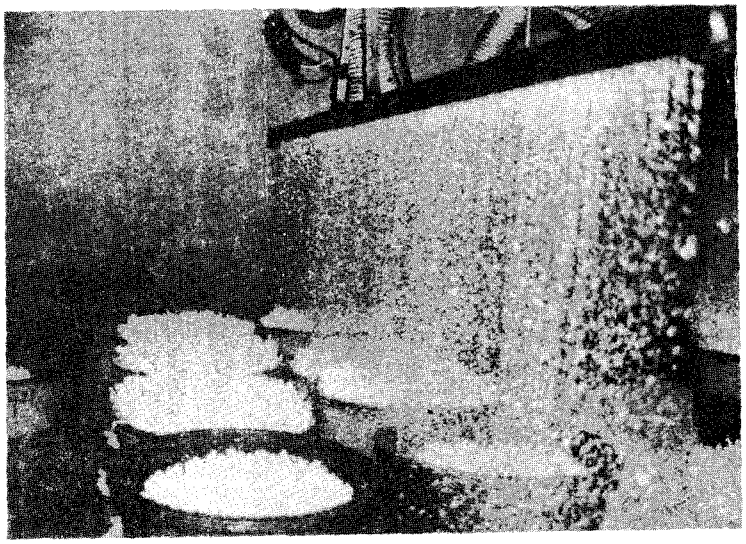
두채업 성공의 열쇠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부인들의 내조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한참 커가는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 혼자 놀 수 있게끔 장난감을 무한정으로 사주면서 남편의 두채업을 도와준 열성과,

그날 그날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돈을 한푼도 축내지 않고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해온 알뜰한 부인의 내조는 박태섭씨의 성실함과 함께 오늘이 있게 된 주요 원인이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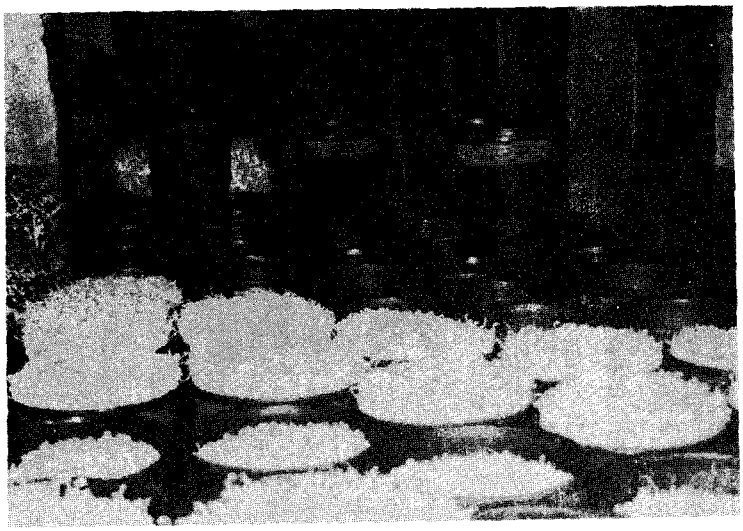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3번지". 박태섭씨의 보금자리이자 그의 꿈이 현실로 영글어가고 있는 콩나물공장은 대지 53평의 평범한 주택같았지만 본인에게는 파란많고 피나는 노력의 소산물로서 이렇게 일구어 놓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박태섭씨가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실패하고 두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약 8년 전인 83년 5월부터. 친구 이호광씨의 주선으로 처음 두채업에 손을 댄 것은 오토바이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점포에 고객으로 찾아주던 이호광씨가 연령도 자신과 비슷하고 인생관이나 모든 면이 자신과 통하는 점이 있어 서로가 흉금을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절실한 친구사이가 되었고,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서로를 도와가며 한 형제같이 지내오던 사이에 박태섭씨의 오토바이 대리점은 심각한 운영난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자, 이때까지 친구 사이로만 지내오던 이호광씨가 콩나물업계의 선배로서 또 새로운 사업의 후원자로서 박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두채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호광씨의 공장 한쪽 구석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였으나, 주로 녹두나물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이호광씨의 공장은 우선 그 온도에서부터 콩나물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는 콩나물이 재배과정에서 썩어버려서 무진 애를 먹었으며, 그때마다 이호광씨의 조언으로 콩나물에 대한 식견을 넓혀나갔고, 거래처의 확보에 있어서도 이호광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두채업에서까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처음 1년간은 이호광씨의 공장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였으나, 언제까지 그렇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만 없어 따로 마련하여 독립하였다.

그러나 근근이 마련된 공장은 자금여력의 부족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콩나물이 재배되었고, 미비된 시설로 콩나물을 기르는 데에 몇곱절의 노력이 소요

됐다. 잠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자 배달중 졸음을 견디지 못해 차를 길옆에 세우고 잠깐씩 눈을 부친 후 다시 배달하곤 하였다.

고생은 박태섭씨뿐이 아니라 그의 부인 임윤준씨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살림을 꾸려나가랴, 자녀돌보랴 또 남편의 콩나물재배일 도우랴 정말 눈코뜰 시간없이 열심히 노력하였다.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콩나물업에서 다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력을 다하여 남편을 도왔다. 따라서 집안살림은 자연이 뒤로 미루게 되었고, 3살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 아이혼자 놀 수 있게끔 장난감을 무한정으로 사주었다. 지금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딸에 비해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없이 밝게 자라 주는데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이 들기도 한단다.

하루 원료콩 5말로 시작된 그의 두채사업은 양질의 콩나물 생산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재배법을 연구함은 물론, 자신의 거래처에 성실하게 물건을 공급하고 배달중에라도 또 주문이 들어오면 하루에 열번이라도 공급하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줌으로써 시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고, 한번 거래를 튼 고객들은 놓치지 않고 자신의 거래처로 확고히 지켜 나갔다.

때마침 천호동 지역의 업자 상호간 경쟁으로 지역업계가 술렁거림으로써 자연 거래처 관리에 소홀하게 되자, 스스로 콩나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성의있게 대처하다가 보니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나게 되어 박씨의 두채업도 차츰 확장됨으로써 한때에는 하루 콩 2가마를 소모할 정도로까지 성장해 있었다.

절약과 검소한 생활로 성공했다는 자부심 커

이제는 콩나물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자신도 붙었고, 두채업계에서 어느정도 기반을 닦게됨으로써 돈도 자연이 벌게 되어 생활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동안 바빠서 못다닌 낚시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부인 임윤준씨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에어로빅을 하는등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알뜰한 부인의 내조로 현재 공장겸 주택으로 사용하는 천호동 집과, 대전에 대지 42평의 2층주택집을 소유하게 되어 이제는 자신이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할 정도까지 됐으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부인 임윤준씨의 지독스러울 정도의 알뜰함이 뒤따라줬기 때문인 것이다. 남편이 거래처에서 그날그날 수금해오는 돈은 내일 당장 지출될 돈이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했고, 은행에 예금하는 습관을 기르다보니 자연 절약과 검소한 생활이 몸에 붙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간을 매일 예금을 하다보니 은행에서도 이들을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고객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후에 집을 장만할 때에는 거액의 주택자금을 신용하나만을 담보로 선뜻 대출받게 되어 천호동집과 대전집을 구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두채업계에서 결코 많지않은 나이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업계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자신을 위시한 젊은 사람

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박태섭씨는 절감하고 있다.

모두 공통된 한목소리로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누구나 두채업계에서 성실하게 노력만 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업계에 당면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직접 나서는 사람은 적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업자 상호간에 단결만 된다면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콩나물의 유해시비나 원료공급 등에 대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업자들 모두가 공통된 한목소리로 부르짖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따라서 두채업계의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업자들의 권위도 신장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고 그의 소감을 피력하기도 하는등, 그가 평소 두채업에 몸담고 있는 동안 체험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앞장서서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제는 자신을 위시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의 콩나물 재배장에서 콩나물 재배에 자신의 비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저 정성껏 돌보고 콩나물재배용기를 매일 끓는 물로 소독하고 있다는 그의 답변은 그와 그의 아내가 콩나물에 쏟고 있는 정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실감하며 박태섭씨의 콩나물공장을 뒤로 하였다.

〈취재 : 편집실〉